최원정

우리는 물건 속의 삶을 향유합니다. 나를 지탱해주는 의자, 함께 고민하는 책상, 어제를 기록해주는 펜과 종이.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동료에게 애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잔잔한 행복입니다. 어제 쓴 종이컵 하나에도 우리의 숨과 이야기가 있습니다. 독립적인 주체로의 제품이 아닌,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동료를 만들어내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.  
  
Choi Wonjeong  
We enjoy life in objects. A chair that supports me, a desk that thinks with me, a pen and paper that records yesterday. It is calm happiness to live with affection to a colleague who shares every moment of life. One paper cup we used yesterday also has our breath and story. I want to be a designer who creates precious colleagues who make stories together, not as an isolated subject.

allerbmu@naver.com